

최대호 국어

지문 요약 및 해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핵심 주제 요약

이 지문은 '보편(공통 본성)'의 존재론적 지위를 두고 대립하는 중세 실재론자 버얼리와 유명론자 오컴의 견해를 설명합니다.

버얼리는 '**공통 본성**'이 **영혼 외부에 실재**하며, 이것이 '성질'과 '양'의 집합을 **단일한 개별적 실체**로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오컴은 이러한 외부적 보편의 존재를 부정하며, 실재는 오직 **개별적 실체**와 **개별적 성질**뿐이고, '보편'이란 단지 영혼 내부의 개념(언어/술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주제와 맥락

(가) 지문의 버얼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10 개 범주 중 **실체, 성질, 양**만이 '**절대적 범주**'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질'과 '양'의 결합체(우유에 의한 순수한 집합체)가 어떻게 '**이순신**'과 같은 **단일한 개별적 실체**가 될 수 있는지 묻고, 그 해답으로 영혼 외부에 실재하는 보편자인 '**공통 본성**'(예: 인간성)이 이 집합체를 하나로 지탱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지문의 오컴은 이러한 버얼리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오컴에게 영혼 외부에 실재하는 것은 오직 '**개별적 실체**'와 '**개별적 성질**'뿐입니다. 그는 만약 '**공통 본성**'이 외부에 실재한다면, '**이순신**'이 개체와 보편이라는 두 부분의 비합리적인 결합체가 되어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컴에게 '보편'은 영혼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들의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혼 내부에 형성된 개념(지향)이자, 여럿에 대하여 서술되는 언어(술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라는 명제는, '철학자'라는 외부 실재 때문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라는 개별적 실체가 영혼 내부의 '**철학자**'라는 **개념에 의해 지칭**되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지문 전체 상세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의 10 범주 (중세 실재론의 토대)

(이 지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철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룹니다.) 그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10 범주**입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본질을 10 가지 범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 범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무엇임), **성질**(어떠함), **양**(얼마임), 관계, 장소, 때, 위치, 소유, 능동, 수동)

중세 시대의 **실재론자들은** 이 10 가지 범주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분'일 뿐만 아니라, 영혼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즉 '**실재(Reality)**'의 구분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성질'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세상에는 '성질'이라는 실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버얼리의 수정된 실재론: 3 개의 절대적 범주

(그렇다면 중세 실재론자들은 이 10 가지 범주를 모두 동등하게 보았을까요?)

(가)의 버얼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10 개의 범주 중 오직 **실체, 성질, 양** 3 가지만이 '절대적 범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 3 가지뿐일까요?) 버얼리에 따르면, 오직 이 3 개의 범주만이 존재하는 대상에 의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나머지 7 개의 범주(관계, 장소 등)는 결국 이 3 가지 절대적 범주로 **환원된다**(줄어들거나 설명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버얼리는 실재(존재하는 것)를 두 가지로 나누어 이 3 가지를 도출합니다.

1.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Substance)입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이라는 특정 개체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합니다.)
2. **다른 것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 이를 **우유(Accident)**, 즉 '우연한 존재'라고 부릅니다. (이는 실체에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의 키, '이순신'의 성격 등은 '이순신'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버얼리는 이 **우유** 중에서도, 개별 실체의 독자적인 특성으로 결정되는 '**절대적으로 내재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 '어떠함'과 관련된 것 = **성질 (Quality)** (예: 이순신의 용감함)
- '무엇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 = **양 (Quantity)** (예: 이순신의 키나 몸무게)

(이 논리적 흐름을 보십시오.) 결국 존재하는 대상에 의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절대적 범주'는 **실체, 성질, 양** 3 가지만 남게 됩니다.

버얼리의 핵심 문제와 해답: '공통 본성'

(그런데 여기서 버얼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성질'(용감함)과 '양'(170cm)은 그 자체로 '이순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순신'에게 우연히(우유) 속한 속성들의 '순수한 집합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속성들을 어떻게 '이순신'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개별적 실체로 묶어주는 것일까요?)

버얼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통 본성(Common Nature)'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를 '실체적 공통 본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버얼리에 따르면, 이 '공통 본성'은 보편(Universal)이며, 우리의 생각(영혼)과는 상관없이 **영혼 외부에 실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별적 실체 '이순신'은 '용감함'이라는 개별적 성질과 '170cm'라는 개별적 양의 합성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 '이순신'이라는 고유한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영혼 외부에 실재하는 '인간성(Humanity)'이라는 공통 본성**입니다.

(즉, 버얼리에게는) '인간성'이라는 보편적 실체가 '이순신'을 지탱하고 단일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재론의 핵심입니다.)

오컴의 반격: 오직 '개별자'만이 실재한다

(버얼리의 '공통 본성' 이론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오컴은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합니다. 왜일까요?)

오컴은 버얼리와 달리, 영혼 외부에 실재하는 것은 오직 '**개별적 실체**'(예: '이순신'이라는 단 한 사람)와 '**개별적 성질**'(예: '이순신'의 그 용감함)뿐이라고 선언합니다. (버얼리가 3 가지(실체, 성질, 양)를 인정한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컴은 버얼리의 '공통 본성'이 왜 틀렸다고 보았을까요?) 오컴은 만약 '공통 본성'(보편)이 영혼 외부에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비합리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1. 만약 '인간성'이 외부에 실재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여러 곳('이순신'에게도, '이항'에게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무엇보다, 만약 '이순신'의 공통 본성('인간성')이 '이순신'이라는 개체와 구분되어 존재한다면, '이순신'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개체'와 '보편'이라는 두 부분의 결합체**가 되어버립니다. (오컴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컴은 '이순신'을 지탱하기 위해 '인간성' 같은 외부의 보편적 실체가 필요하다는 버얼리의 주장을 **전면 부정**합니다.

오컴의 해답: '보편'은 영혼 내부의 '개념(언어)'이다

(그렇다면 오컴은 '인간성'이나 '철학자' 같은 '보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들이 아예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컴은 '보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혼 내부'에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컴에게 '보편'이란, (세상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개별적 실체('이순신', '이황', '이이'...)를 경험하고 그들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영혼 내부에 만들어 낸 '개념(Concept)' 또는 '지향(Intention)'일 뿐입니다.

즉, '보편'은 말 그대로 여러 대상에 대해 서술할 수 있는 **'술어(Predicate)'**, 즉 '언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황'과 '이이'는 '비슷한 인간'이다."라고 할 때, '비슷한'(관계의 범주)이라는 개념이 영혼 외부에 독립적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영혼 내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도구일 뿐입니다.

오컴의 '일의어'와 참된 명제

(오컴의 주장대로라면, '철학자'라는 보편적 실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라는 명제가 참(True)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컴 철학의 핵심입니다.) 오컴은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 버얼리가 말한 '외부 실재'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철학자'라는 말은 '일의어'(하나의 의미만을 지닌 말)로서, 영혼 내부에 있는 개념(술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라는 명제는 왜 참일까요? 그것은 '철학자'라는 보편적 실체가 '소크라테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명제는 주어인 **'소크라테스'**(개별적 실체)가, 영혼 내부에 주어진 개념(일의어적 술어)인 **'철학자'에 의해 '지칭'(refer to)되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즉, 오컴은) '철학자'라는 독립적인 실체가 영혼 외부에 없어도, 명제가 참이 되는 이유를 **언어와 개념의 작동 방식**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추가 배경지식

오컴의 면도날 (Ockham's Razor) - 불필요한 가정을 제거하는 사고

오컴은 "필요 없이 실재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릅니다.)

버얼리는 '이순신'의 단일성을 설명하기 위해, '공통 본성'이라는 **추가적인 실재**를 가정해야만 했습니다.

오컴은 이 '공통 본성'이 **불필요한 가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개별적 실체'와 '영혼 내부의 개념'이라는 더 적은 요소만으로도 '이순신'의 존재와 "이순신은 인간이다"라는 명제의 참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오컴은) '공통 본성'이라는 복잡한 가정을 **면도날로 잘라낸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다)은 현대 과학과 철학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언어적 전회 (Linguistic Turn)의 조짐

이 논쟁은 철학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버얼리(실재론자)는 '실재(Reality)'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에 '인간성'이 실재하는가?)

반면 오컴(유명론자)은 '언어(Language)'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술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말이 어떻게 **참**이 되는가?)

오컴은 '보편'이라는 존재론적 문제를 '술어'라는 **언어적/논리적 문제**로 바꾸어 해결했습니다. 이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를 분석하는 20 세기의 '언어철학'을 수백 년 앞서 보여준 통찰입니다.

개체주의 (Individualism)의 철학적 기반

오컴이 "피조물은 철저히게 '개체적 실체'다"라고 선언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버얼리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성'이라는 보편(집단)이 '이순신'이라는 **개체**보다 더 근본적이거나 최소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컴의 세계관에서는 오직 **개체**만이 유일하게 실재합니다. '보편'은 개체들을 설명하기 위한 2 차적인 도구(개념)일 뿐입니다. 이처럼 '보편'이나 '집단'보다 '**개체**'의 존재를 우선하는 오컴의 철학은, 훗날 서양 사상의 핵심이 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